

(WCA인간관계)

<4·15 총선과 여성 정치참여 확대>

박영숙(맑은정치여성기금운동본부 공동위원장)

정치권의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는 제17대 국회구성을 위한 4·15 총선을 앞두고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범여성계의 다양한 노력들이 펼쳐져왔고 계속 이어지고 있다. 322개의 여성단체들이 결속하여 정치관련법과 제도개혁에 주력한 '총선여성연대'의 활동과, 비례직 50%와 선출직 30%의 할당제 실시에 대비하여 102명의 여성후보를 발굴하여 각 정당에 공개추천한 바 있는 80여명의 여성지도자로 구성된 '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의 활약이 그 예가 된다. 그리고 이들 두 기구와 한국여성재단이 공동으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후보자 당선운동과 유권자운동에 필요한 기금마련을 위해 '맑은정치여성기금운동본부'를 발족하여 현재 '2004 맑은정치 희망지기' 모집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2004 맑은정치 희망지기'란 오늘의 위험수위에 도달한 부정부패정치,의 고리를 끊어내고, 국민이 신뢰하는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풍토를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통해 이루어내는 일에 적극 참여하는 정치개혁의 핵심주체를 의미한다.

"여성이 정치를 하면 정치가 맑아집니까?"라는 질문에 운동본부의 공동위원장인 강지원 변호사는 "물론 맑아집니다. 여성이 소수일때는 남성문화에 편입되기 쉽지만 여성이 동등수준이 되면 달라져요. 남성이 여성과 함께 있으면 주먹질 하나라도 줄어들테고 부패도 줄어들겁니다."라고 답한다.

최근 세계은행의 발표를 보면 여성들의 의회진출이 많은 나라일수록 부정부패가 적고 국민소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현재 여성 국회의원의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인 스웨덴(45.3%), 덴마크(38.0%), 핀란드(37.5%)의 경우 반부패지수가 높았고, 국민소득도 3만달러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원홍 한국여성개발연구원).

또 하나의 질문은 여성의원들이 제대로의 의정활동을 해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제16대 국회의 임기가 끝나가면서 의원들의 의정활동

34

평가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상임위원회 활동에서 베스트10 중의 6명(여성의원 16명)이 여성의원이다. 또한 종합적인 평가에서는 265명의 국회의원 중 최상위급 30명중 5명이 여성이었다. 여성국회의원 비율은 5.6%인데 우수한 활동을 한 것으로 평가받은 여성의원 비율은 17%에 달하고 있다. 게다가 상임위원회별로 볼 때 여성의원이 최고 성적을 얻은 위원회가 16개 중 2개로 12.5%로 나타나 여성의원들이 많이 늘어나면 정치가 한층 발전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게된다. 여성이 조직과 돈 등의 측면에서 남성에 비해 열악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성적을 거두었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여성의원이 많이 늘어나야 한다는 당위성을 명백히 보여준다 하겠다(이연숙 제16대 국회의원).

우리나라의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노력의 발단은 일차적으로 우리나라의 여성의 권한척도의 구체적인 평가가 저조한데서 비롯하였다. UNDP의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인간개발지수는 173개 국가 중에서 30위, 그리고 남녀평등지수(GDI)는 144개국 중 30위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유독 여성의 정치참여도를 평가하는 여성의 권한척도는 70개국 중 63위이다. 역대 어느 때보다 더 여성의원 수가 많았다는 제16대 여성의원의 비율이 5.6%에 불과한 우리나라 여성의 정치참여에는 유엔의 권고수준인 30%는 물론 아시아의 평균 여성의원의 비율인 14.5%에도 못미치고 있다.

제17대 국회를 위한 4·15 총선에서 여성계가 기대하는 것은 각 정당이 공약한바 있는 비례직 50%와 선출직 30%의 이행으로 아시아의 평균치를 뛰어넘는 것이다. 이 시점에서 분명한 것은 56명의 비례직의 50%(열린우리당 60% 공언)인 28명 이상은 확보된 것이다. 각 정당들이 선출직 후보를 얼마나 공천하고 당선시키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여성의 권한척도의 위상은 달라질 수 있다. 여기에는 비록 부패정치의 척결이라는 국민의 여망으로 유권자들의 여성후보들에 대한 투표성향이 많이 달라졌다고는 하나 여성단체들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이며 실질적인 뒷받침이 없으려는 기대할 수가 없다.

여성후보라고 무조건 지지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가 공개 추천한 후보인 경우 여성들은 소속정당을 불문하고 지원하기를 기대한다. 지난 지자체 선거때부터 시행되고

38리온 2인 1표
 있는 '1인 2표제'의 +투표법에 따라 후보자와 정당지지를 별개로 할 수
 있는 이점을 활용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그것이 가능해

4 제17대 국회에 힘겨루기를 일삼는 국회가 아닌 우리들의 삶의 조건
 을 향상시키는 생활정치를 이끌어낼 여성의원들을 다수 보내기 위해 아한
 4·15 총선 투표일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는 기간동안 우리 모두는
 각 지역에서 투표권 바로행사하기와 여성후보자 당선을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

각자 혼자하기 힘들면 '2004 맑은정치 희망지기'가 되는 것이다. 희망
 지기가 되는 방법은 맑은정치여성기금운동본부의 홈페이지
 (www.cleanfund.org)를 방문하여 '맑은정치를 향한 희망지기 선언문'에
 동의서명하고 소정의 기부금을 납부하면 된다. 기부금 납부는 희망지
 기 계좌() 예금주: (재)한국여성재단)에 입금
 한다. 희망지기들은 각 지역사회 여성단체들과 함께 활동 할 수 있다.

우리는 우리가 바라고 있는 공동선의 성취를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
 이 해주기를 기대하는 경우가 있다. 정치는 삶의 조건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말한다. 인구의 반인 여성의 삶의 조건을 경쟁에 익숙해있는 124리온
 남성의원들에만 맡겨서는 안된다. 우리가 꿈꾸고 있는 국민민복을 위
 한 정치, 그리고 평등한 사회는 여성들 스스로가 참여해서 만들어내야
 한다.

전국 방방곡곡에 흩어져 활동하고 있는 수십만의 YWCA 회원들이
 이번 총선에서 성인지적인 유권자운동과 여성후보당선운동을 전개한다
 면 이 세대가 요구하고 있는 정치권의 물갈이와 판갈이는 분명히 성취
 해낼 수 있다고 확신한다.